



28만 순천시민과 함께하는
순 천 시 의 회
SUNCHEON CITY COUNCIL

2023년 3분기 제40호

의정소식

The Suncheon City Council News



이복화-정원물빛



이상호-순천만국가정원



C O N T E N T S

02 인사말

04 주요뉴스

06 회기별 처리 안건

- 의원 발의 안건
- 그 밖의 처리 안건

09 주요 의정활동

- 대정부 건의
- 의원 자유발언

28 상임위원회 활동

- 의회운영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문화경제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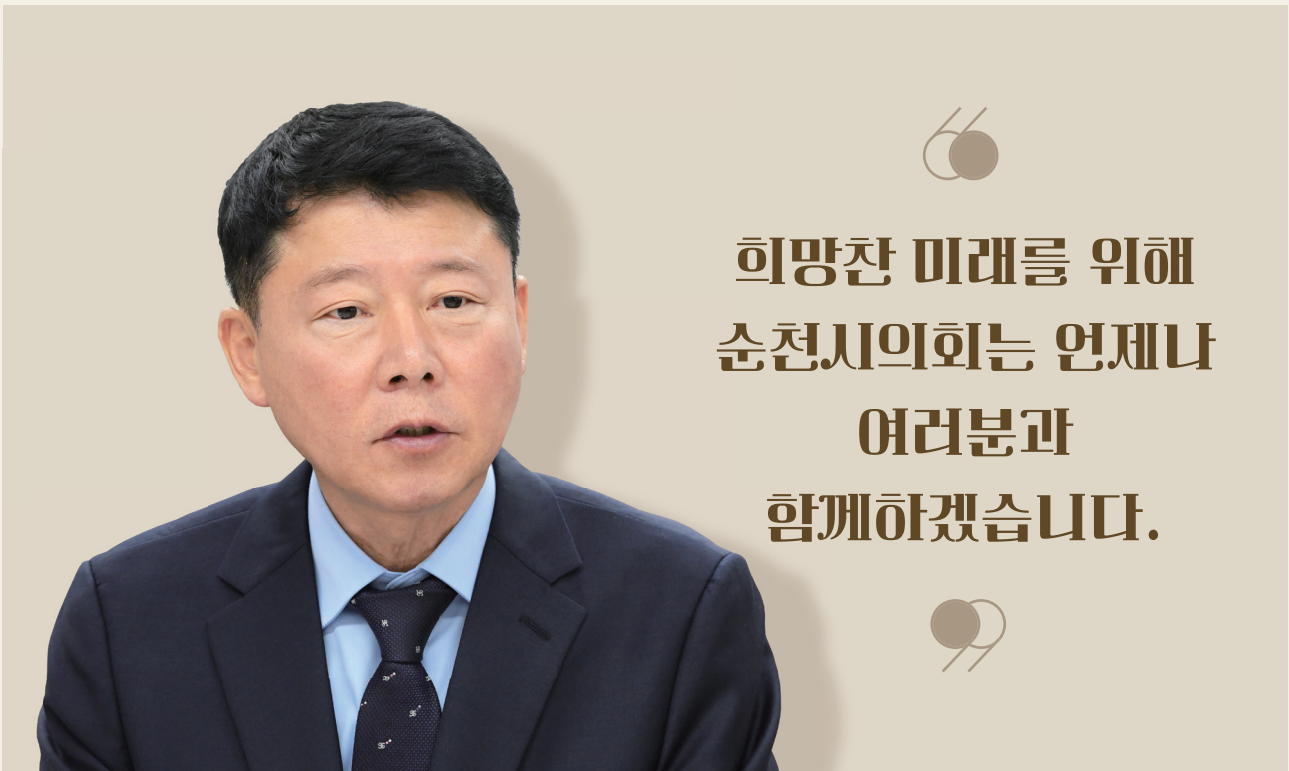
36 특별위원회 활동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
-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39 의회갤러리

46 순천뉴스

49 순천시의회 안내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순천시의회 의장 정병회입니다.

유난히도 긴 장마와 무더웠던 여름을 이겨내고,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을 맞이한 정원박람회장의 매력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화로 물든 정원박람회
장에서 풍성한 가을 정취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4월 개막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개막 149일 만에 600만 명을 돌파하며 정원
박람회를 찾는 관람객의 발걸음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의회도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박람회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있으며, 매주 타 시·군 의회에서 박람회장을 찾고
있어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순천이 글로벌 생태도시의 롤모델로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미래 도시로 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달라진 큰 변화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입니다.

지난 7월에는 처음으로 서기관과 사무관 승진 인사를 단행하였으며, 인사권 독립에 따른 강화된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으로 정책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을 지난해 1명, 올해 11명을 추가로 신규 채용하였으며, 앞으로 전문성 있는 법령·조례 검토, 정책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의원들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의의회는 지난 제269회 정례회와 제270회 임시회를 통해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2023년 업무추진상황보고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남해안벨트 허브 도시 완성을 위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디자인과 지역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본예산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시정이 연초 계획대로 잘 추진됐는지, 예산이 규모 있게 세워졌는지 역량을 총동원하여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모진 여름을 견뎌내고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처럼, 시민들의 꿈이 실현되는 희망찬 미래를 위해 우리 순천시의의회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끝으로, 연초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알찬 열매로 맺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가오는 한가위에는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과 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명절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천시의의회 의장 정 병 희

NEWS

NEWS 01

순천시의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대회 추진



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는 6월 16일 순천시청 정문 앞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순천시의회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해저터널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6월 12일부터 시운전을 하고 있으며, 빠르면 올여름부터 해양 방류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결정은 사실상 핵폐기물을 바다에 불법 투기하겠다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를 무시한 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무책임한 선택이라며 이는 해양생태계는 물론 주변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규탄하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에 대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NEWS 02

순천시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첫 승진자 임용장 수여

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는 7월 3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첫 승진자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용식은 7월 1일자로 김엄준 행정자치전문위원(수석전문위원)이 의회사무국장으로, 박애란 의정팀장이 행정자치전문위원 직무대리로 승진의결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인사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의 장으로 변경된 후 처음으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정병회 의장은 “의회의 인사권 독립 이후 첫 승진자들의 임용장 수여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 03

제9대 순천시의회 개원 1주년



지난해 7월 순천시민의 성원과 기대 속에서 힘차게 출발한 제9대 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았다.

지난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개원한 제9대 순천시의회는 정병회 의장을 중심으로

‘일하는 의회, 강한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현안문제 해결 및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정례회 3회, 임시회 7회 등 총 110일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조례 제·개정안 163건을 비롯해 202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22년도 추경예산안, 2023년도 본예산안 및 추경예산안 등 총 271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상임위원회별로 처리한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홍준) 27건,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영란) 99건,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김영진) 55건,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최병배) 36건을 처리했다.

더불어 시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시정질문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제264회 임시회에서는 8명의 의원이 민생분야와 지역현안에 중점을 둔 순천시 시정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을 통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제265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순천시가 추진한 정책이나 사업, 예산 집행 등 행정 전반에 대해 꼼꼼하고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522건의 시정 개선 요구사항과 26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하였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미흡한 행정은 보완토록 하며 시정개선 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나안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연) 2개의 상임 특별위원회를 비롯하여, 정원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오행숙), 의대유치특별위원회(위원장 강형구), 여순사건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미희), 경전선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향기)까지 4개의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특별위원회와는 별개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과 지역 현안문제 대처 등 의원역량 강화를 위해 재정진단(회장 김미연), 지방소멸 위기대응(회장 정광현) 연구모임도 구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정병회 순천시의회 의장은 “제9대 의회 개원 후 1년 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한층 더 무거워졌음을 실감한다며, 진정한 지방자치는 의회와 집행부의 견제와 균형에서부터 시작 된다는 생각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28만 순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의원발의

제269회 1차 정례회(2023. 6. 7.~2023. 6. 16.)



발의자 양동진 의원 외 3명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거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반영과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오기 등 정정을 통해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발의자 최현아 의원 외 8명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순천시의 상황에 맞게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여수·순천 10·19 문화주간 지정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등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사업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발의자 이세은 의원 외 7명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개정이유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의원발의

제270회 임시회(2023.7.19.~2023.7.31.)



발의자 **이항기** 의원 외 8명

순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제정이유 순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증진, 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 등의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의회



발의자 **최현아** 의원 외 6명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통치권을 빼앗긴 역사적 아픔을 잊지 않고 애국심을 고양하고자 경술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하도록 규정하기 위함

의회



발의자 **김태훈** 의원 외 7명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고물가·고금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율을 상향하고 고용보험료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의회



발의자 **이복남** 의원 외 12명

순천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개정이유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길을 조성하여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순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의회



그 밖의 처리 안건

제269회 1차 정례회

(2023.6.7. ~ 2023.6.16.)

-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023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출연 동의안
- 2023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운영기관 사업 출연 동의안
- 2023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출연 동의안
- 2023년 시군구 지역연구사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출연 동의안
-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순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대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지원 동의안
-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운영 조례안
- 순천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안
- 순천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0회 임시회

(2023.7.19. ~ 2023.7.31.)

-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순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취소 계획(안) (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 임대아파트 건립)
-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 (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연향2지구 공원주차장 조성사업)
-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18.~'22.) 변경 동의안
-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9988㎡)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순천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청년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사무 관리·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

대정부 건의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분양전환을 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공적기금과 각종 세금감면이라는 특혜를 받고도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그 목적은 아랑곳하지 않고 임대사업자의 이윤만 추구하며, 민간임대주택의 경우는 임대사업자의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분양가 책정으로 임차인들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발생함. 이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현실화하고 주택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찾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함



장 경 원 의원

외서·낙안·별량·상사면, 도사동 /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거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크게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우리 시에도 현재까지 이러한 임대주택이 1만여 세대가 공급되어 있으며 향후에도 추가 공급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거주 후 분양전환을 통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근래 분양전환을 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임대사업자는 공공택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은 것을 포함해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본래의 목적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이윤만 추구하려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 방식은 임대임대기간이 5년인 경우와 10년인 경우로 구분되며, 5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분양전환 가격으로 산정하고, 10년 임대

주택의 경우 감정평가 금액을 분양 당시 감정가격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즉, 10년 임대주택은 인근 주택의 시세에 맞춰 공급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오르내림이 있을지 언정, 매년 주택가격이 상승했던 우리 시의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면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이라는 말이 무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때문에 임차인들은 10년 후 폭등한 가격을 기준으로 자금을 부담해야만 하고, 자금을 쉽게 마련하지 못하는 임차인은 감당하기 버거운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거나 결국에는 분양전환을 받지 못해 집을 비워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대한 근거조차 없는 상황에서 건설사의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분양가 책정으로 인해 얻는 막대한 수익에 반해 주택 건설이 시작되는 초기부터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감당했던 주민들은 보금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처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오천지구는 전체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 특히 올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으로 정주 여건이 더욱 개선된 오천지구는 향후 분양 시기가 되면 집값이 더욱 상승할 것이란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평생의 소원인 내 집 마련을 기대한 사람들은 불합리한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에 시름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국회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조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실현하고, 정부와 순천시의 임대주택 정책의 방향성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무주택 서민들의 애환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합리적인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권과 합리적 산출기초에 의한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대한 기준과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공공택지 개발사업 추진 시 공공성 훼손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순천시는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용하기를 촉구한다.

2023년 6월 7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대정부 건의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농업현장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농작물재해보험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저온 피해 자연재해로 농가에게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할증료 등을 폐지하며, 댐 주변 지역 냉해 피해에 대해 조사, 연구를 실시하여 인과관계를 밝히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함



김영진 의원
해룡 / 문화경제위원회

전 문

매년 이상 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기상 변화로 농촌의 고통은 커지고 있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과 예산도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천시도 해마다 호우, 냉해, 폭염, 가뭄 등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자연 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2001년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률은 낮은 상황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제도가 농가의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안정장치이기도 하지만, 현장에서는 보험이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천시 과수 농가는 3,570곳으로 이 중에서 950곳만 보험에 가입한 상황입니다. 가입률은 26.6%로 아직은 낮은 편입니다. 이처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은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보상기준과 실제

수확량이 달라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는 경우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 합니다. 특히 본 의원은 올해 발생한 과수 저온 피해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 습니다.

올해 과수 저온 피해는 순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했고 배, 복숭아, 매실 등 1,170농가 635ha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저온피해로 인해 작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는 올해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온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 특약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농가 가 부담하는 보험료 차이가 3배나 난다고 합니다. 보험에 가입해도 실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 기 때문에 특약에 가입하지 않는 농가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2020년 농어업재해보험 약관 개정으로 적과전 저온 피해 보상률이 기존 80%에서 50%까지 하향되어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보장하는 저온 피해의 경우 태 풍, 호우 등과 달리 보상을 자체가 적어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 몫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처럼 보험료가 매년 소멸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냉해가 없으면 보험을 넣지 않게 되고, 그러다 피해를 입으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보상을 받으면 다음에는 자기부담 할증이 붙게 됩니다. 저온에 의한 피해 등은 자연재해임에도 불구하고 할증이 붙는다는 것은 농가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농업재해대책법상 이상저온 등으 로 재해를 입었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해 면적이 50헥타르 이상이어야 합니다. 50ha 미만이라도 타 시 군과 연계하여 재해 인정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문제 입니다.

저온피해 관련하여 댐을 끼고 있는 지역의 냉해 피해가 컸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 년간 계속되어 온 댐 부근의 냉해 피해에 대한 인과 관계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순천시의회에서는 이상 저온에 따른 과수 농가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이 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저온 피해에 대해 특약 가입없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장비율을 상향하는 등 농업현장에 부합한 현실적인 보상체계를 구축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저온 피해는 자연재해로 농가에게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자기부담 할증을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댐 주변 지역 냉해 피해에 대해 조사, 연구를 실시해 인과관계를 밝히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2023년 6월 7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대정부 건의



최 현 아 의원

해룡 신대리 / 행정자치위원회

국립순천대학교 글로벌대학 30 사업 본지정 선정 지원 촉구 건의안



‘2023년도 글로벌대학 30 사업’에서 국립순천대학교가 예비지정 대학에 선정되어 10월 중 본지정을 위해 준비하고 있음. 전남 유일의 예비 지정 대학인 국립순천대학교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제에 부합하는 ‘글로벌대학 30 사업’에 본지정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촉구함

전 문

2022년도 우리나라 출생률은 0.78명에 불과하며, 유엔인구기금(UNFPA) ‘2022년 세계 인구현황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조사 대상 198개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남은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서울을 제외하고 6위 규모로 대한민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하나, 한국고용정보원이 정의한 지방소멸위험지수는 81.8%로 전남의 대다수의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낮은 출생률로 인한 지역 인구구조 변화는 지역 대학에 큰 위기와 어려움으로 이어져, 일례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대학 폐교와 관련된 이야기가 대학 관계자들끼리 모이면 긴 한숨과 함께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대학들이 현재 처한 어려운 상황을 잘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대학의 어려운 상황은 지방소멸, 지역사회 위기에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신입생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지역 우수 인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초고령화와 맞물려 지방몰락과 빈부격차 심화와 직접 연결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진흥책이 필요하며, 특히 지방대학도 생존을 위하여 변화의 중심인 동시에 지역 혁신의 중심이라는 소명의식으로 위기에 맞서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 특화 산업에 맞춘 지역 우수인재 지속적 육성과 지역 인재 이탈 방지 대책 수립이 필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대학 입학자원 부족과 이로 인한 지속적인 지방대학의 존폐 위기 위협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 중심의 과감한 대학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대학교당 5년간 약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30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달 20일 '2023년도 글로컬대학 30 사업' 15개 예비지정 대학을 발표하였고,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국립순천대학교가 '한계를 넘어선 혁신을 통해 세계적인 특화 분야 강소지역기업 육성대학으로 도약'을 비전으로 예비지정 대학에 선정되어 10월 중 본지정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로컬 대학 30 사업은 '지역인재양성-지역취·창업-지역정주'의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선정된 대학은 5년간 교육부 예산만 1000억원 지원받으며, 다른 부처의 산학협력·연구개발 지원금도 적극적으로 끌어오고 기업 투자도 이루어져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소멸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10월에 있을 '글로컬대학 30 사업 본지정'에 반드시 순천대가 선정되도록 전라남도과 순천시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현재 비단 순천대학교뿐 아니라 모든 대학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더불어 대학교 등록금 동결로 대학의 재정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대학이 일상적 운영도 버거워하면서 연구와 교육에 대한 투자도 멈춰 섰습니다. 첨단기술 산업시대에 나라의 유일한 자원인 인력의 양성을 책임지는 대학의 침체는 지방소멸과 국가경쟁력도 훼손으로 이어질 게 명백합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전남 유일의 예비 지정 대학인 국립순천대학교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제에 부합하는 '글로컬대학 30 사업'에 본지정 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것을 순천 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전라남도지사는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대학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전남 유일의 ‘글로벌대학 30 사업’ 예비지정 대학인 국립순천대학교가 본지정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차원의 전폭적이고 실질적인 행·재정지원을 적극 건의합니다.

하나, 순천시장은 지방대학이 지방 균형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순천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합니다.

2023년 7월 19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대정부 건의

SR 부당특혜 및 철도 쪼개기 민영화 중단, 전라선 수서행 KTX 운행 촉구 결의안



수서고속철도 SR에 대한 무차별적인 꿈수 특혜를 중단하고, 전라·경전·동해선에 수서행 KTX를 투입하여 지역민의 불편을 해소할 것과, 이미 실패한 고속열차의 분리 운영을 포기하고 고속철도를 통합할 것을 촉구함



최 미 히 의원
왕조1 / 문화경제위원회

전 문

철도에 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정권만 바뀌면 철도민영화는 왜 단골 메뉴가 되어야 하는가?

국토부는 꿈수 특혜 중단하십시오!
수서고속철도 SR이 어떤 회사인가? 철도공사에서 손을 놓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철도공사에 기생하는 회사이다. 면허 조건인 부채비율이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꿈수를 부리더니 이제는 국유재산 법시행령까지 고쳐가면서 정부재정을 투입하려고 하는 국토부를 규탄합니다.

모든 공공기관에는 엄격한 잣대로 규제하고 자산매각과 사업비 축소 등을 요구하는 정부는 왜 SR에는 어떠한 규제도 없이 혈세를 퍼부으면서 특혜를 주는지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쪼개기 철도민영화를 중단하십시오!

술한 철도민영화 정책에 맞선 철도노동자들의 투쟁과 국민의 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트워크 산업인 철도를 분할하는 것이 자본을 제외한 국민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철도의 시설유지보수 업무를 분할하고, 차량정비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것입니까? 국토부는 철도를 민영화한 후 잦은 철도 사고에 시달리다 다시 공영화한 나라들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하는 정책은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해서도 안됩니다.
국토부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전라선에 수서행 KTX를 운행하십시오.

SR은 보유하고 있는 여유 차량이 없습니다. 경부선을 운행하고 있는 열차를 축소하고, 차량정비 운영을 위한 정비유치 편성을 줄여 전라선 열차운행에 투입하려 합니다. 지금도 공급하는 좌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경부선 지역민, 호남선의 지역민들은 수서행 열차 이용에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전라·경전·동해선에 수서행 KTX를 투입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을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는 혈세 낭비 중단하고 고속철도를 통합하여야 합니다.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며 SR를 분리 운영하면서 559억의 비용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를 통합하면 중복비용이 사라지고 열차 이용 효율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높아진 효율성을 바탕으로 고속철도 요금을 인하하십시오.

순천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수서고속철도 SR에 대한 무차별적인 꿈수 특혜를 중단하라!

하나. 국토부가 결정만 하면 운행 가능한 전라선·경전선·동해선에 지금 당장 수서행 KTX를 투입하여 지역민의 불편을 해소하라!

하나. 이미 실패한 고속열차의 분리 운영을 포기하고, 고속철도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재투자 되도록 고속철도를 통합하라!

2023년 7월 31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대정부 건의

기초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 보장 및 인사교류 추진 시 1:1 상호교류 추진 촉구 건의안



지속적인 대화와 제도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 7월 정기인사에서 순천시, 영암군 등 6개 시군에 일방적으로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단행했음. 광역단체장이 행사하는 기초단체 부단체장 임명권은 관선 시대부터 이어져 온 관행과 악습으로 진정한 지방분권과 전남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기초단체에 대한 부단체장 임명권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 이에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기초단체의 부단체장의 임명권 반환 및 불합리한 도-시군 간 인사교류를 바로잡기 위해 촉구함



유 영 갑 의원

승주·주암·송광·서·황전·월등 /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되었다. 그러나 민선 8기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의 행정은 여전히 관선 시대, 상명하복 시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시장·군수의 임명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부단체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 등 전라남도의 잘못된 관행은 지방자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대정부 건의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따르면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부단체장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지난 30년간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시군 부단체장에 대해 시장·군수의 임명권을 보장하지 않고 전남서 일방적 낙하산 인사를 단행해 왔다.

전라남도는 지방공무원법상 인사교류 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인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인사교류는 도와 시군이 1:1로 동등하고 합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의미하지 지금처럼 부단체장의 자리를 정해놓고 전남도가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시군은 예산 등 전라남도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울며겨자먹기로 도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사교류라고 하지 않고 낙하산인사라고 부르는 것이다.

도가 일방적으로 내려보낸 낙하산 부단체장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계속되고 있다. 도가 일방적으로 임명한 부단체장은 각 시군의 실정을 모르거나 짧은 기간 동안 재직하고 타 기관으로 전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주민을 위한 적극 행정에 한계가 있다. 이는 곧 행정의 수혜자인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온다.

또한 낙하산 부단체장은 도청 복귀를 염두해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보다는 도 역점 추진사업 및 도 주관 시·군 평가 등에 더 치중, 조직 내 반발과 갈등을 키울 수도 있다.

부단체장뿐만 아니라 순천시를 비롯 일부 시군에 5급 사무관이 파견돼 있는데 이는 1대 1 교류가 아닌 정례적인 도청 인사 자리로 인사교류라는 명목으로 전남도청 공무원들이 승진 혜택을 누리는 동안 기초단체 공무원들은 인사 적체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본부에서 전라남도과 오랫동안 협의를 통해 합리적 인사교류 기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고, 특히 지난 6월 12일 나주에서 열린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신안군수 박우량)에서는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자고 제안하였고, 시장·군수들도 이 문제에 같이 공감하였다.

그러나 개선될 기미가 없는 전라남도의 관행적 행태는 아쉬움을 넘어 기초단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판단할수 밖에 없다.

한단계 더 높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권력을 기초단체에 더 내려놓아야 전남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올해를 30년의 잘못된 관행을 깨고 지방자치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순천시의회에서는 진정한 분권 시대를 만들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지방자치 역행하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 하라!

하나. 도와 시·군간 한 인사교류 시 정당하게 1:1 교류를 시행하라!

2023년 7월 31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원 자유발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피해대책 마련해야

서 선 란 의원

향·매곡·삼산·저전·중앙 / 도시건설위원회

서선란 의원은 지난 6월 16일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의원이기 이전에 가정주부로서 국민들이 수산물을 기피하고 소금 사재기를 하는 등의 행동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불안감에 잠이 안 올 정도라고 운을 떼며,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은 우리 몸의 DNA를 변형시키고 생태계를 오염시키며, 특히 삼중수소인 트리튬은 현재 과학 기술로는 제거할 수 없는 핵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양 방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택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어업과 수산업의 쇠퇴뿐만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서선란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반 운영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인근 지자체와 시민 확산 운동이 절실히 요구되어 단계적인 대응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부는 물론 우리 시와 의회,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시라도 빨리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환경을 남겨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면, 이는 정치권의 존재 의무이며 사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자유발언을 마쳤다.

의원 자유발언



바람직한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실시해야



이 세 은 의원

비례 / 문화경제위원회



이세은 의원은 지난 6월 16일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과 바람직한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올해 5월 말 기준 순천시 아동학대 건수는 135건으로 작년 5월 말 대비 약 2배 정도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의 약 90%가 가정 내 부모와 가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2020년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자치단체가 사건 전면에 주체로 나서고, 자녀 체벌을 금지하기 위한 민법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여 중대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아동학대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정 내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은 미숙한 자녀의 양육태도와 높은 양육스트레스, 체벌을 훈육으로 여기는 태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부모가 양육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좀 더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부모교육정책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세은 의원은 지역 내 0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 43,789명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을 돕고, 실효성 있는 부모교육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원한다며 자유발언을 마쳤다.

의원 자유발언



신규아파트 하자 처리 관련 순천시 자체기준 강화해야

서 선 란 의원

향·매곡·삼산·저전·중앙 / 도시건설위원회

서선란 의원은 지난 7월 31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신규입주아파트의 하자 처리와 관련하여 순천시 자체기준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 의원은 관내 신규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해 해당 건설사들의 책임 떠넘기기로 하자보수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입주민들이 주거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다며 순천시가 주택 행정에 적극적 태도와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건설사들 사이에서 ‘순천에서 아파트 제대로 짓지 않으면 사업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어야 한다며, 최근 폭우 속에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침수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시민들의 주거 안전과 직결된 문제들이 시급히 조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천시 자체 개선 방안에 따라 입주 전에는 입주자 입회하에 점검을 추진하고 준공시기까지 미조치 되는 하자는 향후 조치 일정을 안내받도록 되어 있지만, 입주 이후 발생하는 하자 접수건의 조치 지연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선란 의원은 “입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건설사들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며,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순천시에서도 신규아파트 하자 처리와 관련하여 자체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원 자유발언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백원 임대주택 정책 도입해야

장 경 순 의원

왕조1 / 행정자치위원회



장경순 의원은 지난 7월 31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순천시 청년 인구 유입 및 정착 방안으로 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 의원은 시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에 12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는 실정을 지적했다.

이어 형식적인 예산 투입이 아니라 청년이 공감하는 실질적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년 및 신혼부부의 보금자리 지원을 위한 '백원 임대주택' 정책의 도입을 제안했다.

민간사업자가 공실률이 큰 노후화된 민간임대아파트를 값싼 임대료로 순천시에 공급하면 도배·장판 등 집수리 후 청년들에게 제공하여 관리비만 부담하게 한다면, 청년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여 청년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경순 의원은 “역동적이고 생기가 넘치는 전남 제1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의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절실함을 역설하며, 순천시의 효율적인 청년 주거지원 정책 추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의원 자유발언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 환경 조성해야

정 광 현 의원

향·매곡·삼산·저전·중앙 / 문화경제위원회

정광현 의원은 지난 7월 31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교권과 학생 인권을 재진단하고 현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여론과 ‘학생 인권 조례가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빚어진 교육파탄’이라는 대통령실의 발언을 두고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적이고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인권의 균형점을 찾고 교육환경을 회복시켜야 한다며,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교육과 생활 지도를 위해 교사와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광현 의원은 “사회적 문제로 인해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하며 자유발언을 마쳤다.



순천시의회와 ‘페친’이 되어주세요!

“땡동~♪”

순천시의회가 친구요청을 보냈습니다.

순천시의회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순천시의회 공식 SNS에 생생한 의회소식을 담아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facebook

순천시의회
게시자: 김미영 · 7월 3일 · 4

순천시의회, 인사권 독점 후 첫 순천시 임용장 수여
순천시의회는 3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첫 순진자에게 임용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인사권 독립이후 첫 순진자에게 임용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인사권 독립이후 첫 순진자에게 임용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순천시의회 #임용장 #모두 #축하드립니다

2023년 하반기 정기인사 임용장 수여식

순천시의회 👍 ‘좋아요’

facebook

순천시의회
게시자: 김미영 · 7월 14일 · 4

순천시의회, 국립의대 산업을 위한 국회 포럼 참석
순천시의회가 7.14(금)에 지역 중의의료원 구축 및 국립의과대학 산업을 위한 국회 포럼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포럼은 수도권에 편중된 지역 간의 의료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의과대학 설립을 포함한 의료 공백 해소에 대해 이야기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지역민의 불편한 만큼 균형적 관심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순천시의회 #국립의대

국립의대 산업을 위한 국회 포럼

순천시의회 👍 ‘좋아요’

facebook

순천시의회
게시자: 김미영 · 7월 19일 · 4

순천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구성
순천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위원회는 내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며, 순천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위원회는 내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며, 순천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었습니다.

#순천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순천시의회 👍 ‘좋아요’

순천시의회 공식 페이스북 접속방법

- 포털사이트에서 ‘순천시의회 페이스북’ 검색
- 주소 직접입력 : facebook.com/suncheoncouncil
- QR코드 접속

순천시의회▶
페이스북 바로가기





의회운영위원회



정 홍 준
위원장



장 경 원
부위원장



이 향 기



김 태 훈



최 현 아



양 동 진



이 세 은



정 광 현





▲ 제269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홍준)에서는 제269회 제1차 정례회부터 제270회 임시회 기간 동안 다음 회기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의회사무국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또한 순천시의회 의장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 및 2023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실시하고 의원 연구모임 등록 및 지원 심의를 위해 논의했다.

제269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제27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시작으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의회사

무국 운영을 위해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면밀하게 검토 및 심의하였고, 청렴한 지방의회 만들기에 앞장서고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바탕으로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기존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의원 국내출장비 부담수령 방지 조항과 의원 징계 및 구속 시의 의정비 지급제한 조항을 신설했고,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에서 불필요한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이어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품위유지·청렴의무·회피 의무 등 기존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총 6개의 비위 유형을 신설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멸 위험에 놓인 지방 중소 도시의 중·장기적 해법을 모색하여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순천시의회 지방소멸 위기대응 연구모임’을 심사·의결했고, 집행부의 2023년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2023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서 작성의 건’을 의결했다.



▲ 제27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70회 임시회에서는 제2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했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의회사무국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주요 계획 및 업무의 방향성을 파악했다. 또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의회사무국 향후 예산 운용 및 집행 방향을 확인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하여 일하는 의회 만들기에 앞장섰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영란
위원장



최현아
부위원장



박계수



유영갑



정홍준



장경순



유승현



장경원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영란)에서는 지난 제269회 제1차 정례회 및 제27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안건과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고, 2023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일반안건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위령사업 등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여수·순천 10·19 문화주간 지정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등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사업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 등 조례안 8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3건, 동의안 1건, 보고안 1건, 의견청취 1건으로 총 1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사업의 적정성, 상위법 저촉 여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7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4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공유재산 안건심사를 위해 방문한 '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 임대아파트 건립' 및 '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현장에서는 과거 공유재산

취득 당시 의회가 제시한 사업위치 적정성 검토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추진한 사업이 결국 우려 대로 계획 변경 추진되는 것을 질타하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연향2지구 공원주차장 조성사업' 현장에서는 주차 수급률의 부족 및 진출입로와 접근성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인근 철도부지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기획예산실 등 직속부서와 행정안전국, 시민복지국, 보건소로부터 받은 2023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서 각종 사업추진 시 행정절차에 맞는지, 예산 낭비의 우려는 없는지 등을 두루 살피며 전반적인 사항을 꼼꼼히 점검했다. 기획예산실에는 시장 공약사항 등 정책의 이행을 제고 방안 마련과 추진실적이 저조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철저한 홍보를 당부했고, 행정안전국에는 현재 진행 중인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관련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해 줄 것을, 시민복지국 및 보건소에는 누수 없는 복지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이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기존의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걸러내고, 예산편성기준과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업별로 면밀하게 검토했다.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뿐만 아니라 의회의 고민과 연구도 시정 발전에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순천시와 순천시의회 간 투명하고 신속한 자료 공유를 당부하며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리모델링 현장방문



▲ 시립공원묘지 현장방문



▲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현장방문



▲ 연향2지구 공원주차장 조성사업 현장방문



문화경제위원회



김영진
위원장



정광현
부위원장



나안수



최미희



김미연



신정란



김태훈



이세은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김영진)에서는 제269회 제1차 정례회부터 제270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일반안전심의’ 등 의정 활동을 펼쳤다. 더불어 이 기간 동안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제269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역’을 심사하여 분납 및 채권 확보 등 적극행정으로 미수납액을 징수하고, 예산 편성 시 전년도 결산 결과를 활용하여 행정 수요가 많은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등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했다. 또한 ‘순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에 진행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순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주문했으며,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충분하고 적법한 사전 절차를 거쳤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등 낭비 없는 예산 수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향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마쳤다. 일반 안건으로는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의·의결했다.



▲ 해룡산단 파크골프장 조성 대상지



▲ 상사 파크골프장



▲ 정유재란 역사체험학습장

회기 기간 중 주요 현안과 관련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정유재란 역사체험학습장, 해룡산단 파크골프장 조성 대상지, 상사 파크골프장 등에 대해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추진 사업들이 시민의 복리와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 병 배
위원장



양 동 진
부위원장



강 형 구



이 복 남



오 행 숙



우 성 원



이 향 기



서 선 란





▲ 조곡 보행교 설치사업 현장 방문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최병배)에서는 제269회 제1차 정례회부터 제270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조례안, 2023 업무추진상황 보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을 면밀히 심사했다.

제269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조례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다. 양동진 의원이 발의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상위법령과의 관계, 제개정 등을 고려해 수정가결 1

건, 보류 1건의 심사 결과가 나왔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국비 등 공모사업 확정 후 반납하여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으니 공모 신청 시 면밀히 검토하여 공모’ 등을 권고하여 가결했다.

제270회 임시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현장방문, 일반안건 및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2023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았다. 이향기 의원이 발의한 「순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과 이복남 의원이 발의한 「순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의 제개정안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 4건, 수정가결 1건, 보류 1건의 심사결과가 나왔고,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 예정지를 방문하는 등 사업의 적정성 및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및 주민 의견 수렴 후 사업 위치 재검토’의 사유로 총 2건 4,300백만원을 삭감했으며, 하반기 골프장 환경관리 합동점검 현장 등 3개소를 방문해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및 우리 시 현안 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도·점검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두고 위원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각오를 다졌고,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직접 현장을 지도하고 점검하는 등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하반기 골프장 환경관리 합동점검 현장 방문



▲ 백강로 완충녹지 조성 및 이면도로 개설사업 현장 방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연)에서는 제 26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순천시에서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건정성관리계획 수립 후 공시 및 의회 보고 의무 이행 철저 등 총 8건을 권고하며 심사·의결했다.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정란)가 새로 구성되어, 순천시에서 제출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와 신성장 디지털 경제·문화·관광·체육 촉매 및 순천형 일류 복지·보건 도시 실현과 K-순천의 농업 구현 등을 위해 반영한 예산으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순천시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 16건, 97억9천4백만원을 삭감하여 본 회의에 제출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오행숙)는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중 박람회 개막 후 2개월 가량 지난 시점에 향후 활동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열띤 토의를 통해 박람회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요청자료 목록을 작성했고, 본 목록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자칫 누락되거나 간과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점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제270회 임시회 중에는 요청자료 목록을 바탕으로 박람회 진행상황 중간 보고를 진행했다. 보고는 박람회 총 투입 예산, 입장객 현황,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박람회 종료 후 오천그린광장 존속 여부 등에 대해 진행하였으며, 집행부 보고 후 위원들은 운영 관련 권고사항과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며 미비점 등 개선사항에 대해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전라남도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유치 지원(순천에 의과대학 유치) 특별위원회

전라남도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유치 지원(순천에 의과대학 유치) 특별위원회(위원장 강형구)는 지난 7월 1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진행된 지역 공익의료인력 확충 및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권역별 국립대학교 공동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공동포럼을 통해 다시 한번 전남은 현재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음을 표명하고 더욱 심해지는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전라남도(순천) 내 의과대학 설립이 필요함을 밝히며 의대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의회갤러리

PHOTOGRAPHY

QR코드를 통해 더 많은
사진들을 확인 해 보세요



2023. 6. 2.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순천-진주 교류행사



2023. 6. 6. 현충일 추념식



2023. 6. 10. 6.10항쟁 기념행사



2023. 6. 15.
시각장애인 체육대회



2023. 6. 17. 오천워터아일랜드 개장식



2023. 6. 19. 순천시의장기 배드민턴 대회



2023. 6. 22. 목포시의회 방문



2023. 6. 23.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지역의견 청취



2023. 6. 27. 관악구의회 방문



2023. 6. 29. 영주시의회 방문



2023. 7. 8. 조곡동 철도마을 어린이 동요제



2023. 7. 12. 예천군의회 방문



2023. 7. 14. 지역공공의료인력 확충 및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국회포럼



2023. 7. 21. 전국아파트연합회 순천시지회 워크숍



2023. 8. 4. 세계유산축전 선포식



2023. 8. 4. 반려동물문화센터 개관식





2023. 8. 11. 도사녹진회 정기총회



2023. 8. 14. 제5회 조례호수공원 물총축제



2023. 8. 15. 남해안남종권문화예술제



2023. 8. 16.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방문



2023. 8. 16. 3분기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



2023. 8. 18.
세계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기념식 및 평화나비 문화제



2023. 8. 19. 2023 순천 뷰티 페스타



2023. 8. 19.
아시아구석기학회 국제학술대회



2023. 8. 23.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순천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개관

순천시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지난 8월 4일 전남권 최초로 개관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올바르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사회적 갈등 완화에 기여하여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건립되었다.

주요 시설로는 반려유기동물공공진료소와 반려동물 실내놀이터(대형견 놀이실, 중소형견 놀이실), 체험학습실(기초미용, 간식만들기 등 실습 교육), 교육실, 영상교육실, 입양상담실 등이 구성되어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예절교실, 산책교실, 원데이 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시민, 관심이 있는 예비 반려인들이라면 누구나 방문 및 전화 사전 예약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단, 동물 등록과 종합 예방접종을 완료한 반려동물만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제도 운영

순천시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8월부터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란 국가나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가구를 말한다.

순천시는 복지사각지대로 신고된 주민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로 선정될 경우 위기가구를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5만 원(동일인의 경우 연간 최대 30만 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위기가구의 당사자와 친족, 발굴에 참여하는 인적 안전망(마중물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위기가구 신고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으면 알려주세요

순천시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제도가 함께 합니다!

대 상	위기가구 신고자 (일반시민)
내 용	이웃의 신고로 발굴된 위기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지원금	신고 1건당 5만원 동일제보자 연 30만원 이내 지급

문의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희망복지팀(061-749-6182)

순천뉴스 ★ 핫이슈

SRT 순천역 운행



9월 1일부터 여수엑스포역에서 출발해 순천을 거쳐 수서역에 도착하는 전라선 SRT(수서발 고속철도)가 운행된다. 수서역은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SRT의 종착역이자, 지하철 3호선, 수인·분당선의 환승역이다. 하루 2회 왕복으로 총 4회 운행되며, 순천 ~ 수서 기준 약 2시간 45분 소요된다.

이용 요금은 일반실 41,000원, 특실 59,500원이다. (9월 1일 순천역 ~ 수서역 기준) 그동안 전라선은 용산역, 서울역까지 KTX만 30회 운행했지만, 이번 SRT까지 포함하여 총 34회로 늘어난다. 강남을 가기 위해 환승 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이동 시간이 절감되고 있다.

▶ 열차 시각은 SRT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https://etk.srail.kr/main.do>

9월부터 아랫장과 웃장 주차장 유료화

무료로 운영되던 주차장이 9월부터 연중 유료화된다.

아랫장과 웃장은 평소에도 수천 명이 방문하고, 장날에는 1만 명 이상 문전성시를 이루는 곳이다. 하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차장을 몇 바퀴를 돌다가 다시 나와 시간만 낭비했다며 불평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그동안 시에서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해 주차 공간을 꾸준히 확보해 왔지만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무분별한 장기 주차 등으로 주차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주차난 해소와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유료화하기로 결정했다. 주차 후 2시간 동안은 무료이기 때문에 장을 보기 위해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료화하는 주차장은 아랫장은 주차타워 217면, 웃장은 노외주차장과 신설된 주차타워를 합쳐 152면이다. 유료 주차시간은 하절기(4~10월)에는 아침 8시~저녁 8시, 동절기(11~3월)에는 아침 9시~저녁 7시까지이며, 그 외에는 무료로 개방할 계획이다.

주차요금은 최초 2시간 동안 무료이며, 2시간이 초과되면 매 30분당 5백 원이 추가되며, 월 정기주차는 5만 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21번 시내버스 노선 일부 변경

조곡 ~ 용당 간 도로 준공 예정에 따라 시내버스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21번 시내버스 노선과 운행시간표가 변경되었다.

● 21번 시내버스 운행 코스 및 시간표 변경 내역

- 운행변경일 : 2023. 9. 1.(금)

- 노선 변경 구간

기존 문화예술회관 → (석현 주공아파트 → 웃장 → 성동다리 → 시청) → 남교오거리

변경 문화예술회관 → (용당노인복지관 → 조곡이편한세상A → 조곡교 → 의료원로타리 → 중앙시장) → 남교오거리

- 운행횟수 : 1일





순천시의회 안내

의회 방청 안내

순천시의회에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실현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적극 환영합니다. 시의회는 방문하는 시민과 학생들에게 시설견학, 의회안내, 의회방청 등 모든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 방청안내 :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61)749-4951

의회에 바란다

순천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는 시민들의 제안이나 제도 개선 등 의견을 청취하고 의정 활동에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의회에 바란다” 참여방법

인터넷 주소창에 “순천시의회” 를 입력하거나.

인터넷 주소 <http://sccouncil.go.kr>을 직접입력 →

참여마당 → “의회에 바란다” 클릭 → 본인인증 후 글쓰기

의회 민원 상담 창구

전화 061)749-5987

FAX 061)749-4773

의회 전화번호

의장실	부의장실	의회운영 위원장실	행정자치 위원장실	문화경제 위원장실	도시건설 위원장실
749-4900	749-5972	749-5974	749-5975	749-5976	749-5977
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실	의정팀장	의사팀장	의정홍보팀장	의회사무국 FAX
749-5980	749-5982	749-4950	749-4957	749-4963	749-4773

순천시의회 SNS



페이스북 @순천시의회(suncheoncouncil)



유튜브 @순천시의회(sccouncil)



블로그 @순천시의회(061sccouncil)

의정소식지 편집위원회

- 위 원 장 정흥준
- 부위원장 장승태
- 위 원 김성홍 김성재 장경원
최현아 정광현 양동진



일하는 의회 강한 의회 신뢰받는 의회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Suncheonman
International
Garden Expo 2023

2023.4.1. ~ 10.31.

- 발행일 : 2023. 9.
- 발행인 : 순천시의회 의장
- 전 화 : 061)749-4965
- F A X : 061)749-4773